

OECD 개발글로벌 포럼 결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 계기에 제1차 개발글로벌포럼이 2007.4.3 파리에서 개최되었음

I. 주요 내용

- 금번 포럼은 신흥원조공여국 등장 등 다양한 개발원조 주체의 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 DAC 회원국, 우리나라 등 신흥공여국의 고위 관계자 및 수원국, 민간 공여단체, UNDP 및 세계은행 관계자 참석
- 우리측 대표는 '제2세션 : 신흥공여국과 개발원조'에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신흥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발표하여 최근 신흥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제고
 - 특히 우리정부가 신흥공여국과 기존공여국간

전략적인 협력을 위해 오는 9월 제2차 OECD non-DAC 공여국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대해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큰 관심 표명

- 금번 포럼은 개발원조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DAC 회원국, 신흥공여국, 다자개발기구, 민간원조단체간의 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II. 상세 내용

1. 신흥공여국과 개발원조 Session

가. 한국 (박인국 외교정책실장)

- 'ODA 종합개선대책'에 따라 MDGs를 개발원조 사업에 반영
- 수원국의 ownership 강화를 위해서 베트남

등 주요 수원국과 ODA 정책대화, country program 작성을 추진

-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개발원조 사업 절차를 단순화
-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상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수출진흥이 효과적인 방안이었음을 설명
- 신흥공여국들이 수원국들에게 다양한 빈곤 퇴치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가 있음을 강조

나. 브라질 (Miranda 경제기획부 국제담당 장관)

- 여타 중남미 수원국과 개발전략 공유(sharing)를 위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관점에서 개발원조를 접근
- 재원이 부족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등 지역 개발은행과 협력이 필요
- 경험 공유를 위해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

다. 태국 (Xuto 외무장관 특보)

- MDGs 달성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
- 신흥공여국들은 남남협력 차원에서 수원국들과 협력관계를 구축
- 수원국 주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과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이 중요하다고 강조

라. IMF (Ahmed 국제협력국장)

- 신흥공여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개발원조 분야에서 이들의 역할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 원조의 조화(harmonization)를 위해서 정보 공유가 필요
- 특히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 수원국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고려한 유상 원조 제공, 신흥공여국과의 솔직한 대화채널 확보를 강조

마. 세네갈

- 신흥공여국들이 조건(conditionality)없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어 수원국 입장에서는 원조 사용에 있어 유연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

바. 에티오피아

- conditionality와 관련 민주주의, 인권 등은 수원국 주도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외부의 조건부과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

사. 일본 (베소 국제협력국장)

- 일부 신흥 공여국과 삼각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10차에 걸쳐 양자 원조정

책대화를 개최한 경험을 소개

- 신흥공여국과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9월 제2차 OECD non-DAC 공여국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준데 대해 사의 표명

아. 아시아개발은행(ADB)

- 역내 신흥공여국의 등장이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 활성화, 역내 인프라 건설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

2. 다자간 원조 Session

가. UNDP (Dervis 총재)

- 최근 유엔 개혁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Delivering as One Initiative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유엔이 원조사업 현장에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나. 아프리카 개발은행

- 지역개발은행은 개별 공여국을 보완하면서 역내 인프라 건설, 역내 국가의 주인의식 제고, 역내 국가의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에서 비교우위 보유
- 제한된 재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다. EC

- EC가 제공하는 ODA가 전체의 57%를 차지
- 다양한 원조행위자의 등장으로 원조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여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를 채택
- 각국의 원조정책을 규율할 목적으로 Code of Conduct를 채택하여 역내 공여국 및 수원국에게 모범사례를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라. 스위스

- 원조 시행기관의 책임구조(accountability architecture)관련 다자원조기구는 개별 자금 공여국에 책임을 지고, 개별 공여국은 다자기구의 효율성 강화를 전제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
- 유엔 개혁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

마.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원조 관련 연구기관)

- 다자개발은행들이 정치적인 위기(political crisis)를 겪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쿼터 조정 등 자체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일부 유럽국가들이 과도한 쿼터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바. UNDP

- 파리선언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세부 행동지침(Code of Conduct) 결여, 사업현장에서 투명성과 일관성 부족을 거론

사. 개발센터측

- 개발원조가 더딘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로 수원국의 필요보다는 공여국 내의 선호(domestic preference)에 초점을 둔 원조행태를 지적

3. 재정기구와 글로벌 프로그램 Session

가. 글로벌 펀드

- 원조구조(aid architecture) 논의에서 수원국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펀드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

나. Thalwitz 세계은행 글로벌파트너십 국장

- 글로벌 프로그램은 보건, 교육분야에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국가 주도의 양자지원과 회원국간 합의에 바탕을 둔 다자 지원간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

다. Leer Foundation

(네덜란드 민간파운데이션)

- 개발원조에서 민간기구가 최근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어 공여국과의 협조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라. 방글라데시

- 원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향상방안과 성과도출을 위해서 원조사업 현장에서 공여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필요

마. 가나

- 글로벌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부적으로 결정되더라도 수원국내에서 재원의 사용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HIV/AIDS 퇴치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 가능

바. 에티오피아

- 글로벌 프로그램이 수원국 입장에서 질병퇴치 등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지원과 글로벌 프로그램간에 적절한 조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4. 정책결정자 Session

가. 에티오피아

- 원조구조(aid architecture)가 선진공여국의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
- 공여국의 원조중단은 성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충분한 사실확인 작업 진행 후에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

나. 국제개발협회(IDA)

- 르완다의 경우 보건분야에 대한 원조의 75%가 중앙정부가 아닌 민간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수원국의 주인의식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등장
- 특정국가에 대한 원조집중(aid darling)문제와 더불어 특정분야에 대한 원조의 집중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 IDA의 수원국 실적 기반 지원(performance-based operation) 시스템이 원조성과를 제고할 가능성 지적

다. 프랑스

-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의 성공여부는 수원국 주민에게 실제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지 여부에 좌우
- 항공권 연대기여금 등 혁신적 개발재원은 국

제적인 연대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

-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을 위해 NGO, 시민단체, 지자체를 원조활동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라. Standard & Chartered

- MDG 달성이 기존 원조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 중국과 개도국간 무역 등 남남 협력이 개도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
- 금번 글로벌 포럼이 민간과 공여국간 이해를 제고할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
- 한국 등 신흥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마. DAC 의장

- 금번 글로벌 포럼을 통해서 기존 공여국, 신흥공여국, 민간 파운데이션, 글로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위자간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기반 조성 기대
-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OECD non-DAC 공여국 회의가 이러한 논의를 이어갈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